

## 직무발명? 딱딱한 법령집 대신 만화로 보세요

「만화로 보는 직무발명사례집」 발간

**휴** 휴대폰 회사의 종업원이 획기적인 휴대폰 문자입력기술을 개발한 경우, 이것은 회사의 특허일까? 개발한 종업  
**유** 원의 특허일까?

기업 입장에서는 종업원이 기술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장비와 자재, 비용 등이 사용되었으므로 마땅히 기업이 특허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종업원 입장에서는 자신의 아이디어로 인해 회사에 상당한 수익을 가져다주었을 경우,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양 당사자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제도가 바로 직무발명보상제도이다. 종업원이 발명한 특허기술을 회사의 소유로 할 경우 종업원에게는 정당한 보상을 통하여 종업원의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하고자 하는 것이다.

최근, 대부분의 핵심 기술은 기업의 직무발명에 의해 창출되나, 직무발명에 대하여 발명자에게 보상을 하는 제도를 갖춘 기업의 비율은 4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특허청은 직무발명에 대한 사회전반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만화”를 통해 독자들에게 보다 쉽게 직무발명에 대한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만화로 보는 직무발명사례집」을 발간하였다.

이번 「만화로 보는 직무발명사례집」은 지난 4월에 개최된 「전국 대학(원)생 직무발명 창작만화 공모전」에서 선정된 작품과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국내·외의 직무발명 소송사례를 비롯, 직무발명 Q&A를 삽입하여 직무발명제도의 궁금증을 명쾌하게 해소해 주고 있다.

김원중 특허청 차장은 발간사를 통해 본 책자가 ‘연구자·발명자에게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풍토가 마련되어 경쟁력 있는 특허기술 창출의 초석’이 되는 길라잡이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 ‘축약형 상표 인기, 줄일수록 커지는 매력’

중고등학생용 참고서에 특히 인기

**최** 근 긴 단어나 문장을 짧게 줄인 축약형 상표가 많이 출원되고 있다. “우공비”(우리들의 공부비법), “한끝”(한 권으로 끝내기), “기탄”(기초탄탄), 꿈틀(꿈을 담은 틀)와 같이 중고등학생용 참고서에서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진다.

축약형 상표가 중고등학생용 참고서에 출원되는 이유는 인터넷 등 실생활에서 신조어를 사용하는 청소년의 언어 습관을 반영한 것으로 주 소비계층인 10대에게 친숙하고 마음을 끌 수 있는 점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축약형 상표는 2000년을 전후하여 준말 형태의 인터넷 언어들이 상표로 출원되면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초기에는 “강추”(강력 추천)와 같은 인터넷 용어를 그대로 출원하다가, 최근에는 출원인이 준말형태로 직접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출원하고 있다. TV프로그램에서도 “엄뿔”(엄마가 빨났다), “꽤땃”(꽤밀리가 땀다)과 같이 준말 사용이 일반화되는 현상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되며 이제 상표에서도 축약형이 하나의 흐름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Made in Korea 지식재산권 콘텐츠, 세계시장에 진출

특허청, 세계지식재산권기구와 UN 공용어판 IP 파노라마 공동개발

**우**리가 만든 지식재산권 영문 e-러닝 콘텐츠 "IP 파노라마"가 UN 공용어<sup>1)</sup>로 번역되어 189개국, 26억 명 규모의 세계시장에 진출한다.

특허청은 세계지식재산권기구와 향후 4년간 UN 공용어 버전의 IP 파노라마를 공동개발하기로 합의했으며 이에 따라 '09년 아랍어 버전 IP 파노라마를 개발한다고 밝혔다.

IP 파노라마 (Intellectual Property PANORAMA)는 실제 비즈니스 현장에서의 지식재산권 활용전략을 다룬 영문 e-러닝 콘텐츠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한국 특허청과 세계지식재산권 기구<sup>2)</sup>가 공동으로 개발하였다.

기존의 국내 지식재산권 교육 콘텐츠가 법적·이론적 내용을 다루었던 것과는 달리, IP 파노라마는 실제 비즈니스 현장에서의 지식재산권 활용전략을 다양한 애니메이션 캐릭터와 이야기 형식으로 풀어내어, 마치 드라마를 보듯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내용이 영어로 구성되어 있어 세계 각국에 콘텐츠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보급하는 데에도 강점이 있다.

### □ 콘텐츠 내용



〈IP 파노라마 학습화면 예시〉

제공 특허청

1) 영어, 아랍어, 러시아어, 중국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6개로 현재 189개국, 26억 명이 UN 공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2)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 : 1967년 지식재산권의 국제적 보호촉진과 국제협력을 위하여 설립된 UN 전문기구로 한국은 1979년 가입하였으며 2009년 현재 WIPO Member States는 184개이다.